

다크 간호사

[Phase.0]	활기찬 클리닉과 조용한 쌍둥이 방문	1
[Phase.1]	황혼의 진찰실과 악한 제안	3
[Phase.2]	해매고 준비, 부풀어 가는 투명한 관장	4
[Phase.3]	관장 선고 때	5
[Phase.4]	파자마 가랑이 부분의 텐트	7
[Phase.5]	부드러운 위로와 날뛰는 흥분의 이유	9
[Phase.6]	드러나는 소년 바지와 언니의 고백	10
[Phase.7]	손가락 끝에 달는 열과 풀리는 소년의 경계	12
[Phase.8]	간호사의 연계와 무방비한 소년의 수난	14
[Phase.9]	항문에 바셀린, 그리고 갑자기 손가락 삼입	15
[Phase.10]	항문에 꽂은 손가락을 힘차게 회전	17
[Phase.11]	특제 관장으로 채워지는 직장	18
[Phase.12]	버림받는 편의의 해일과 탈지면 쓰레기의 저항	20
[Phase.13]	폭로되는 수치의 가장 안쪽과, 묻는 유희	22
[Phase.14]	관장 인내의 포상으로 항문을 강렬하게 밀린다	24
[Phase.15]	용서없는 추가 관장과 재래하는 결과의 공포	26
[Phase.16]	번쩍이는 소년의 하복부와 무의식이 새겨지는 배변의 울동	28
[Phase.17]	임계의 10분간과 흘러내리는 비액의 이유	30
[Phase.18]	마지막 10 카운트였는데, 추가 추가 관장	32
[Phase.19]	한계에서 배설의 순간에 마개	33
[Phase.20]	배 마사지와 항문 마개에 리드미컬한 강충격	36
[Phase.21]	교차하는 연동의 광란, 그리고 경계의 붕괴	38
[Phase.22]	한계없는 연동의 극치와 절정의 태동	40
[Phase.23]	배 전체 무게 + 항문 마개에 토도메의 일격 = 결말	42
[Phase.24]	사정하면서 배변	44
[Phase.25]	배변 후 마사지, 착취되는 잔편	46
[Phase.26]	마지막 편까지 착취된다	48
[Phase.27]	다음날 병실과 노출된 소년의 연심	50
[Phase.28]	텐트의 흔적과 속삭이는 영복의 조교	51

창 밖에서는 목가적인 세미의 목소리와 어딘가 그리운 흙의 냄새가 섞인 바람이 불어옵니다.

「아카리짱, 조금 이걸 도와주지 않아?」

같은 해의 동료 간호사인 사키가 점적을 준비하면서 말을 걸어 왔습니다.

이 산악의 작은 시골에 있는 클리닉은, 나와 사키, 그리고 젊은 의사의 선생님의 3명만으로 자르고 있는, 매우 작은 장소입니다.

「네, 지금 갈게요」

나는 진지한 것만이 취급과 같은 간호사입니다만, 마을의 할아버지나 할머니들로부터는, 언제나 「아카리짱, 아카리짱」이라고 손자처럼 귀여워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새로 들어온 입원 환자는 항상 내원하는 마을 사람들과는 조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다리의 골절로 잠시 입원하게 된, 귀여운 쌍둥이 자매의 시롬군(동생 분)입니다.

병실에 들어가자, 침대 위에 김스로 고정된 다리를 던진 실롬 군이, 미안한 것 같은 얼굴로 이쪽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아, 아카리 씨. 죄송합니다, 일부러 와줘"

「응, 신경쓰지 마세요, 실롬군. 아픈는 곳은 없습니까?」

「네, 선생님께 처치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시골의 진료소에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손을 번거로워 버려, 왠지 정말 괴로워서...

"그런 말을 하지마. 이것이 내 일이니까, 뭐든지 의지해 주세요"

실롬군은 정말로 정중한 말하는 법을 하는 아이로, 왠지 지켜주고 싶어지는 그런 모성 본능을 간질이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약간 얼굴을 붉게 하고, 기쁘게 미소를 지었다.

「아카리 씨에게 그렇게 말해 주면, 몹시 안심합니다. 왠지, 여기에 와서 좋았다고 생각해 버리네요」

"흠.....?"

그 때, 방의 구석에 있는 파이프 의자에 자리잡고 있던, 쌍둥이의 언니의 하임짱이, 낮고 평탄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임짱은 시롬군과는 대조적으로, 언제나 로텐션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하나 잡을 수 없는 소녀입니다.

"하임, 그런 소리를 내면 아카리 씨에게 실례예요"

「별로...

「그건, 아카리씨가 상냥하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렇다...

하임 짱은 기분 좋게 머리를 망치면서 시선을 창 밖으로 향해 버렸습니다.

조금 차가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동생의 동행으로 계속 여기에 있어 주기 때문에, 분명 상냥한 언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임짱도 긴 여행으로 피곤하지 않습니까?

「나의 건, 좋다...

「네, 맡겨주세요. 실롬 군이 하루라도 빨리 건강하게 걸을 수 있도록, 저, 열심히 신세요」

"감사합니다, 아카리 씨. 저, 아카리 씨가 담당으로 정말 기쁩니다"

실롬 군은 똑바른 눈으로 나를 보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간호사로서의 보람을 마음의 바닥에서 느끼고, 나도 조금 빛나 버립니다.

「이제, 실롬 군하면 능숙하니깐. 그럼, 우선은 열을 측정시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체온계를 건네주면, 실롬 군은 솔직하게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하임짱은 역시 졸릴 것 같은, 이상한 눈으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Phase.1] 황혼의 진찰실과 악한 제안

저녁이 되어, 밖의 매미의 목소리가 히그라시의 슬픈 소리로 바뀔 무렵, 진료소의 선생님이 귀가의 지도를 하면서 나를 불러 멈추었습니다.

「아카리짱, 좀 좋을까? 입원하고 있는 실롬군이지만」

「네, 선생님. 시롬군이 어땀어요?」

「카르테를 보았는데, 요즘 계속 배변이 없는 것 같다. 환경이 바뀐 탓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유석에 몸에 좋지 않으니깐. 만약 오늘의 밤이 되어도 나오지 않는 것 같으면, 관장을 걸어 줘」

「관장입니까.....」

선생님은 「잘 부탁해」라고 말하고, 그대로 진료소를 나중에 해 갔습니다.

나는 진지한 간호사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지시는 절대이고, 실롬 군의 건강을 위해서도 제대로 일을 완수하지 않으면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면, 나의 배후로부터 토코토코와 발소리가 가까워져 오고, 동료의 사키가 웃는 웃음을 띄우면서 어깨를 늘어놓아 온 것입니다.

「이봐, 아카리. 아까 선생님께서부터 관장의 지시, 나왔지?」

「응. 시롬군, 입원하고 나서 한 번도 변통이 없는 것 같으니깐, 약으로 깨끗이 시켜 주지 않으면」

「후훗, 과연 이봐...

「에? 응, 확실히 있어서도 예의 바르고 귀여운 소년이지만...

「아카리짱은 정말로 우브구나. 아노사, 시롬군, 조금 귀엽기 때문에 장난스러워 버리는 건가」

「엏...

사키의 돌박자도 없는 말에, 나는 눈을 둥글게 해 놀라 버렸습니다.

의료 행위에 대해 장난스럽다니 그런 불진한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인데, 사키의 눈은 진심의 약속함을 즐기고 있는 소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자, 관장의 양이야, 규정의 범위 내에서 조금 조정할 수 있지 않나?

「그, 그런 거 안돼, 사키! 실롬군에게 불쌍하고 선생님의 지시라도 있으니까...

「굳은 말은 하지 않아. 신체에는 해가 없는 범위이고, 편의가 평소보다 강하고, 단번에 와 버릴 뿐이니까 괜찮다고.

아카리짱은 실롬군에게 관장하는 것, 이것이 처음이지요?」

「응, 처음이지만...

「그렇다면 상업이야. 사춘기의 귀여운 소년이 부끄러워서 필사적으로 견디고 있는 얼굴은, 조금 어색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사키는 나의 어깨를 팔꿈치로 쫓아가면서, 즐겁게 웃고 있습니다.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사키의 기세에 밀려 버려, 그 이상 강하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으, 음... 하지만 역시 불쌍하다...

「이제, 아카리짱은 진지하다. 그렇지만,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롬군에의 관장, 조금은 흥미 있겠지요? 그럼, 나는 다른 작업이 있으니까, 준비와 실시는 맡겼으니까!」

사키는 히라히라와 손을 흔들면서, 처치실을 나가 버렸습니다.

남겨진 나는, 트레이 위에 준비된 관장의 도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까와 격렬하게 고민하기 시작해 버렸습니다.

실롬 군을 편의로 괴롭히고 싶다니, 그런 불근심한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사키의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가슴의 고동이 점점 빨라져 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Phase.2] 해매고 준비, 부풀어 가는 투명한 관장

사키에 밀려나는 형태로 혼자 남겨진 나는 가슴의 고동을 한때 없을 정도로 울리면서 조제실 선반 앞에 서서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짓을 해도 좋은 것일까...

나는 진지한 간호사로서 지금까지 선생님의 지시대로, 그리고 환자를 위해 생각하고 솔직하게 일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키의 「소년이 부끄러워서 필사적으로 견디고 있는 얼굴은, 조금 어지러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이, 마치 달콤한 독처럼 나의 머리의 심에 달라붙어 떨어져 주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예의 바르고, 나를 「아카리 씨」라고 부르고 당황해 주는 소년의 시롬군.

그 어른스럽고 귀여운 실롬군이, 내 손에 의해 관장되어, 강렬한 편의에 습격당해, 얼굴을 새빨갈게 해 곤란해져 버리는 모습을 상상하면, 등에 속삭인 기묘한 고양감이 달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나는 부정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흘러나오게 하고, 오봉 위에 도구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좀더 작은 사이즈의 글리세린 관장을 사용하는 곳입니다만, 나는 선반의 안쪽으로부터, 묵직한 무게가 있는 유리제의 100밀리리터 대용량 관장기를 꺼냈습니다.

가볍고 투명한 유리통은 앞으로 실롬군의 체내에 쏟아지는 약액의 양을 이야기하도록 중후한 존재감을 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나는 그것을 1개뿐만 아니라, 예비도 포함해 몇개나 고트고트와 오봉 위에 늘어놓아 뒀습니다.

사키가 말한 「조금 많게」라는 말이, 내 머리 속에서 점점 부풀어 오르고, 어느새 어리석은 양이 되어 있었습니다.

「관장의 농도는... .. 이 양이라면 30%로 해보자...

농도 30퍼센트의 특제 글리세린 관장은, 실롬군의 배를 아프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어찌면, 직장에 도착한 순간에 용서가 없는 강렬한 편의가 되어 그를 덮치게 됩니다.

따뜻한 정제수와 글리세린을 조심스럽게 조제하여 최고의 관장액을 완성했습니다.

그것을 두꺼운 유리 관장기의 흡입구에서, 차분히 빨아 올려 갑니다.

피스톤을 끌어올 때마다, 100밀리리터의 눈금까지 나미미미와 채워져 가는 투명한 액체를 응시하고 있으면, 진지하게 살아 온 자신이, 왠지 매우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배덕감에 싸였습니다.

「시롬군, 이런 관장당하면 대단한 일이 되겠지... ..

그렇게 자신에게 변명을 하면서도, 내 손은 떨고 있었습니다.

1개, 또 1개와 농도 30퍼센트의 약액으로 채워진 거대한 유리 관장기가 오봉 위에 늘어서 가는 광경은, 어딘가 이상하고, 그래서 내 장난 마음을 격렬하게 자극합니다.

준비가 된 오봉을 양손으로 들어 올리면, 끈질기고 무거운 대응이 전해져 왔습니다.

「좋아...

나는 파타파타와 조용히 복도를 걸으면서 수치와 쾌감에 흔들리는 실롬군의 얼굴을 떠올리며 긴장으로 입술을 작게 씹었습니다.

[Phase.3] 관장 선고 때

완전히 밤의 책이 내려간 진료소의 복도는 낮의 활기찬이 거짓말처럼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저는 농도 30퍼센트의 약액을 채운 100밀리리터의 유리 관장기가 몇 개나 늘어선 봉을, 손수레 카트에 실어 조용히 복도를 진행했습니다.

고트고트, 작고 금속이 서로 마찰하는 소리가, 화상에 넓게 느껴지는 공간에 울려 퍼져, 나의 가슴의 고동을 한층 빨리 새기게 합니다.

사실이라면 이미 면회 시간은 벌써 종료하고 있을 시간대였습니다만, 시롬군의 병실의 문의 틈새에서는, 희미하게

불이 새고 있었습니다.

부드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역시 거기에는, 주간과 변함없이 쌍둥이의 언니의 하임짱이, 실롬군의 침대 옆에 있는 파이프 의자에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하임은 수중의 작은 휴대 게임기에 시선을 떨어뜨린 채, 담담하게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고, 내가 들어온 것도 눈치채고 있는지 없는지, 여전히 로테이션인 분위기를 감돌고 있습니다.

「실롬군, 실례하네요. 밤의 검온과 배의 상태를 물어보러 왔습니다」

"아, 아카리 씨. 늦게까지 고마워요. 일부러 감사합니다."

실롬 군은 침대 위에서 상체를 일으켜, 평소와 같이 정중한 어조로 나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자신이 지금부터 관장된다니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실롬군.

그 순수한 눈동자에 바라보면, 카트 위에 숨기도록 태우고 있는, 대량의 거대한 유리 관장기의 존재가 갑자기 무서워 보입니다.

저는 침을 삼키면서 선생님의 지시를 전하기 위해 조금 목소리를 내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실롬군. 선생님의 지시로, 최근 며칠 통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오늘 밤은 약을 사용해 배를 깨끗이 시키자고 하게 된 거야」

「약,입니까...

「응, 마시지 말고...

나의 입으로부터 「관장」이라는 말이 튀어나온 순간, 실롬군의 신체가 깜짝 강장했습니다.

미루미 사이에 그의 하얀 뺨이 새빨갳게 물들어 가고, 부끄러움의 그다지 어째서 줄을지 모른다고 하는 모습으로, 시선을 곳곳에 방황시키고 있습니다.

「엣, 아, 저... ... 인가, 관장,입니까...

「괜찮아요, 간호사에게 있어서는 보통 일이니까요...

내가 조금 놀리는 것 같은,하지만 상냥함을 담은 목소리로 물어보면, 실롬 군은 완전히 말을 잃어 버렸습니다.

그는 부끄러움의 극한에 이른 것 같고, 껍 입술을 묶은 채, 옆드려 완전히 침묵해 버렸습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귀 근처까지 새빨갳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은, 사키가 말하고 있던 대로, 정말 귀엽고, 나의 가슴의 안쪽에 있는 장난 마음을 더욱 격렬하게 타오르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게임 화면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던 하임 짱이, 패턴과 게임기를 달고, 조용히 이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면회 시간은 지나고 있었습니다만, 나는 굳이 하임짱에게 퇴출을 촉구하지는 않고, 이대로 그녀의 눈앞에서 처치를 진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임짱, 실롬군이 앞으로 관장되는 거야, 여기서 보고 있어도 괜찮아?」

「응.....별로, 좋지만.....

하임짱은 특히 놀라운 모습도 없고, 굉장히 평연한 로텐션인 채, 동생의 관장 장면을 차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실의 언니의 눈앞에서, 엉덩이로부터 관장된다고 하는 사실을 밀어붙여, 실롬 군은 한층 더 축소되고 있습니다.

「하, 하임은... .. 보지 마세요... ..」

「그래, 선생님의 지시니까. 제대로 배를 깨끗이 합시다」

내가 그렇게 말하자면, 하임짱은 후우, 작게 숨을 내쉬고, 이번에는 쪽 눈을 감고 묵묵히 버렸습니다.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 라고 차화하는 것도 아닌, 그 독특한 정적이, 병실의 긴장감을 한층 더 높여 갑니다.

아직 속옷을 내리기 전이라고 하는데, 관장 선고된 것만으로, 실롬 군은 완전히 나의 페이스에 말려들어, 부끄러움에 몸을 떨게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장바구니 위의 수건을 부드럽게 물러 갔고, 안쪽으로 가득 채워진 몇 개의 두꺼운 유리 관장기를 그들의 시선 앞에 부드럽게 드러냈다.

[Phase.4] 파자마 가랑이 부분의 텐트

병실의 공기는 마치 젤리처럼 무겁고 달콤하게 덮여있었습니다.

나는 손수레 장바구니에서, 미나미미와 농도 30퍼센트의 글리세린액이 채워진 중후한 유리 관장기를 1개, 카차리와 조용한 소리를 세워 들어올렸습니다.

그 서늘한 유리의 질감을 손바닥으로 느끼면서, 나는 침대에서 경직하고 있는 실롬군을 향해, 매우 사무적이고 상냥한 간호사의 소리를 의식해 말했습니다.

「실롬군, 침대 위에서 자는 채로 좋기 때문에, 그대로 무릎을 세워 주세요. 사실이라면 옆을 향해 주겠습니다만, 실롬군은 다리를 골절하고 있어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이대로 앙상태 상태로, 다리를 넓혀 엉덩이를 밀어내는 자세——「쇄석위」

「자, 쇠석위...

실롬 군은 얼굴을 체리처럼 새빨갈게 하고, 사라질 것 같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쇄석위, 기저귀를 바꾸기에 가까운 체위. 차이를 준다면 열린 다리는 받침대에 올려 놓기 때문에, 편하게 이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골절하고 있는 다리를 망치기 위해서는, 옆을 향한 자세를 취할 수는 없고,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부끄러울 것이다, 무방비로 가랑이를 여는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합니다만, 그런 일을 하면 년경의 소년인 시롬군의 친친은 물론, 향문까지 동근 보입니다.

나는 그의 긴장을 풀어주듯 미소를 지으며, 우선은 처치의 방해가 되는 두꺼운 이불의 끝을 양손으로 확실히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제대로 빨리 하니까요. 자, 조금 이불을 물려나요"

그렇게 말해 내가 걸어 이불을 발밑쪽으로 당기려 한, 그 때였습니다.

그때까지 어른스럽게 줄어들고 있던 실롬군이, 갑자기, 양손으로 필사적으로 이불의 가장자리를 잡고, 믿을 수 없는 힘으로 자신의 신체쪽으로 되돌렸습니다.

「아, 아카리씨, 기다려 주세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어머...

나는 예기치 못한 강한 저항에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여성 간호사로부터의 관장이 부끄럽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예의 바르고 솔직한 실롬 군이, 이렇게 필사적으로 저항한다니, 어딘가 위화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옆의 파이프 의자에서는, 하임 짱이 변함없는 차가운 눈빛 그대로, 미동이 되지 않고 2명의 교환을 정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지한 간호사이므로 환자의 부상을 악화시키는 길고 긴밀한 질문 답변은 피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무리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다고는 해도, 그는 다리를 골절해 침대에 누워 있는 것만으로, 섬세한 소년입니다.

"안돼요, 실롬군. 제대로 일하게 해줘"

나는 조금만 강한 어조를 의식하면서, 훨씬 팔에 힘을 담아, 실롬군의 가는 양손의 손바닥으로부터, 억지로 이불을 벗겨내도록(듯이) 해 단번에 끌어내렸습니다.

바사리, 그리고 큰 소리를 내고, 그의 몸을 지키고 있던 마지막 방벽이 완전히 제거됩니다.

그 순간, 내 시선은 그의 잠옷 바지의 가랑이 부분으로 못을 박았다.

「아...

실롬 군이 착용하고 있는 얇은 파자마의, 다만 가랑이의 위치.

거기에는 숨길 수 없을 정도로 작은 텐트가 딱 날카롭고 똑바로 일어서고있었습니다.

(이것..... 작지만 발기...

물론 성기가 작다고 해서 상처를 입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부끄러움과 긴장, 그리고 앞으로 베풀어지는 나로부터의 관장에 대한 두려움이나 흥분이 섞여 버렸는지, 그의 소년으로서의 부분이, 건강하게 정도로 딱딱하게 쏟아져 있었습니다.

「아, 으아...

실롬 군은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이번이야말로 완전히 패닉이 되어, 시트 위에서 덜컹거리고 떨기 시작했습니다.

뜻밖의 해프닝을 눈에 띄고, 나의 심장도 도쿤과 크게 뛰어 올랐습니다만, 그와 동시에, 사키가 말하고 있던 「장난스런 마음」이, 내 안에서 단번에 폭발할 것 같게 되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Phase.5] 부드러운 위로와 날뛰는 흥분의 이유

잠옷의 가랑이에 딱 작게 일어난 텐트를 바라보면서, 나는 일순간만 멍하니 버렸습니다만, 곧바로 심각한 간호사로서의 이성을 총동원해, 나에게 돌아왔습니다.

「아카리씨...

얼굴을 양손으로 덮고 침대 위에서 작아지고 있는 실롬군의 신체는, 불쌍한 정도로 세세하게 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부끄러워하거나 놀리는 것은 그의 자존심이 완전히 상처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는 일부러 부드럽고 감싸는 부드러운 소리로 그에게 말했다.

「괜찮아요, 실롬군.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정말 괜찮으니까요」

「하지만...

「인간의 신체의 구조인 것, 어쩔 수 없어요. 소년은 네, 잠자리에 들기 직전이라든지, 꼭 끼고 있던 기분이 풀어 릴렉스했을 때 어쨌든, 자연스럽게 이렇게 발기해 버리는 일이 있어요.

나는 그의 베개에 부드럽게 붙어 안심하도록 잠옷 위에서 그의 가느다란 어깨를 부드럽게 톱툰과 두드려 위로했습니다.

실제로는 앞으로 행해지는 관장에의 긴장이나 수치심이 원인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심각한 간호사로서의 걱정으로, 그를 상냥하게 팔로우해 주고 싶었습니다.

나의 상냥한 말을 듣고, 실롬군은 덮고 있던 손을 조금만 틈새에서 열어 눈물인 채, 갈라지듯이 나를 올려다 왔습니다.

「아카리씨... .. 정말... .. 미안해...

「그래,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아무것도 신경쓰지 않아서——」

「흠... ..

그 때, 그때까지 계속 나와 실롬 군의 교환을 묵묵히 듣고 있던 하임짱이, 갑자기 쪽 대화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억양이 없는, 지성에 가까운 로텐션인 목소리인 채, 내 얼굴과 실롬군의 가랑이 사이의 텐트를 번갈아 바라보고, 조용히, 하지만 정확하게 동생을 차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롬...

「워..... ! ? 하, 하임...

언니로부터의 용서가 없는 한마디에, 실롬군은 튀어나온 것처럼 침대 위에서 몸을 흔들며, 한층 더 얼굴을 새빨갳게 물들였습니다.

「그래도 시롬, 옛날부터 그런 곳 있고...

「그, 그런 게 아니에요...

실롬군은 필사적으로 목을 옆으로 흔들며 눈물을 띄우면서 전력으로 하임짱의 말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필사적으로 변명을 하면 할수록, 잠옷의 가랑이의 텐트는, 한층 더 단단하고, 폭 꽃아 가는 것이 나에게 분명하게 보여 버렸습니다.

실의 언니에게 「관장되기 때문에 흥분하고 있다」라고 핵심을 찔러 부끄러움의 극한 속에서 필사적으로 부정하는 실롬군.

그 모습을 가만히 무표정으로 바라보는 하임짱.

두 사람의 상호 작용을 응시하고 있는 동안, 나 안의 장난 마음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곳까지 크게 부풀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Phase.6] 드러나는 소년 바지와 언니의 고백

병실 안에 떠도는 기분이 든든한 공기는, 실롬군의 필사적인 변명에 의해, 한층 짙은, 그리고 열을 띠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그런 건 아니에요...

눈물로 하임짱의 말을 부정하는 실롬군의 어깨는, 격렬한 수치심으로부터인가, 소각에 맴돌고 계속 떨고 있습니다.

나는 진지한 간호사로서 처치를 완수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사키로부터 불어진 악희심의 틈에서 격렬하게 흔들리면서도, 더 이상 시간을 늘릴 수는 없다고 자신에게 말하게 했습니다.

「실롬군, 하임짱, 말은 거기까지 해 둬시다. 선생님의 지시대로, 제대로 관장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잠옷을 벗어 달라고 해요」

나는 손수레 카트의 옆에서 1보 뺏아 실롬군의 허리 밑으로 양손을 뻗었습니다.

「아, 아카리씨, 기다려.....! 스스로, 스스로 벗으니까...

"안돼요, 실롬군은 다리를 골절하고 움직일 수 없겠죠?

실롬군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고 느낀 것.

그가 나보다 훨씬 연하의 소년인 것이, 그 얇은 신체 불이나, 필사적으로 저항하려고 하는 어린 행동으로부터도 아픔만큼 전해져 왔습니다.

언제나 중년이나 노인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신선한 감촉이었습니다.

이 경우의 '신선'이란 나의 경험으로서도 신선했고, 실롬 군이 아직 젊고 인간이라는 생물로서 봐도 신선하다는 것으로, 진정한 의미로 더블 미닝입니다.

나보다 훨씬 연하의, 아직 어른의 계단을 오르기 시작한지 얼마 안된 소년을, 내 손으로 무방비한 모습으로 해 버린다는 사실에, 나의 손끝은 긴장으로 작게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실롬 군의 잠옷 바지 고무끈에 손가락을 걸었고, 그의 부상을 입은 다리에 부담이 걸리지 않도록, 신중하게, 망설이지 않고 시끄럽게 아래쪽으로 내렸습니다.

「으아...

실롬 군은 짧은 비명 같은 목소리를 울리고 부끄러움의 너무 침대 시트를 양손으로 강하게 잡았습니다.

벗겨진 잠옷 바지 아래에서 나타난 것은, 어른의 남성과 같은 복서 팬츠 등이 아니고, 놀라울 정도로 소년다움이 남는, 새하얀 팬티였습니다.

그 백지의 중앙 부분은, 방금 전부터 서 있던 텐트 때문에, 둥글게, 그리고 통과 앞으로 돌출하도록(듯이) 부자연스럽게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하얀이라고는 말했습니다만, 미세하게 황변도 있어, 소년의 가량이 정도인 진한 향기가 코에 붙었습니다.

년 상응의 서류를 입고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내 손에 의해 백일 아래(라고는 해도 한밤중입니다만)에 노출되어 버린 것으로, 시롬군은 이제 얼굴로부터 불이 나올 정도로 새빨갈게 되어, 신체를 작게 둥글게 하려고 했습니다.

「아카리 씨...

사라질 것 같은 목소리로 간청하는 시롬군의 모습은, 비호욕을 돋우는 것과 동시에, 나의 가슴의 안쪽에 있는 사키의 말——「부끄럽고 필사적으로 견디고 있는 얼굴」을 보고 싶다는 왜곡된 기대를, 더욱 강하게 자극해 갔습니다.

이제부터 이 아이에게 관장한다. 어떻게 되어 버릴까.

그러자 그 모습을 가만히 관찰하고 있던 하임짱이, 다시 한번 땀땀하고, 억양이 없는 로텐션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카리 씨...

「뭐...

"그래도, 진짜 일이고...

하임짱은 특히 표정을 바꾸는 일도 없고, 마치 일상적인 날씨를 보고하는 것 같은 가벼움으로, 시롬군의 프라이빗한 비밀을 나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실의 언니에 의해서, 자신이 아직 소년용의 흰 브리프를 애용하고 있는 것까지 폭로되어 버렸고, 실롬 군은 완전히 도망가를 잃은 것처럼 절망적인 표정을 띄웠습니다.

「하임... ... 이제 그만두고...

「시롬군, 서류, 매우 어울리고 귀엽네요. 아무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왓」

(아)

사춘기의 소년에게 귀엽다는 금구였을까라고 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면서도, 다음은 드디어 그 하얀 천을 한계까지 내려야 한다는 현실에, 차분히 배의 바닥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Phase.7] 손가락 끝에 달는 열과 풀리는 소년의 경계

병실의 공기는, 실롬군의 거친 호흡의 소리만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실의 언니인 하임짱에게 평소의 서류 사정까지 폭로되어 완전히 마음이 부러져 버렸는지, 실롬 군은 시트를 잡은 채로, 그냥 몸을 으쓱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지한 간호사로서 처치를 진행하기 위해, 고크리와 침을 삼키면서, 그의 허리에 남겨진 흰 면의 서류의 고무에 다시 양손을 뻗었습니다.

「그럼, 실롬군...

「으, 아..... 어...

실롬 군은 모기의 울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단지 나에게 매달리도록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부상을 입은 다리를 만지지 않도록 세심한주의를 기울이면서 천천히 서류 고무를 손가락 끝으로 잡고 아래쪽으로 밀어 내려갔습니다.

그 때였습니다.

부끄러움으로 수중이 조금만 미쳐 버렸는지, 혹은 나의 손가락 끝이 긴장으로 떨고 있었기 때문인지, 딱 붙어 있던 작은 텐트의 끝 부분에, 내 손등이 우연히도 껍 직접 접촉되어 버렸습니다.

「아...

실롬 군이 짧게 숨을 삼키는 기색이 전해져 왔습니다.

나보다 훨씬 연하의 소년다운, 아직 어딘가 어린아이의 남은 작은 발기.

하지만, 내 손등에 제대로 전해져 온 그 느낌은 놀라울 정도로 딱딱하고 생명의 열을 띠고 뜨겁고 똑바로 휘젓고 서있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작고 귀여운 소년인데, 나의 손에 의해 베풀어지는 관장예의 공포와 수치심만으로, 이렇게도 단단해져 버리고 있다——.

그 '작지만 놀라울 정도로 딱딱하다'는 사실이 내 손등을 통해 뇌리에 직접 구워져 가슴의 안쪽을 격렬하게 조였습니다.

(귀여워...

진지한 간호사로서는 절대로 안아서는 안되는, 달콤하고 음란한 사랑스러움이 나의 마음을 지배해 갔습니다.

손등에서 전해지는 그 딱딱함과 부드러움을 경비한 열감에, 나 자신의 신체의 안쪽에서도 지와지와 뜨거운 흥분이 들어올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트레이 위에 있는 대량의 유리 관장기를 바라보고, 이 귀여운 소년을 지금부터 내 손으로 관장하고, 강렬한 편의로 번창하게 해 버린다고 하는 배덕적인 흥분에, 나는 숨이 괴로워질 만큼 가슴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손등에 해당하는 작은 성기를 일부러 조금만 길게 느끼게 하면서도, 그 소름 끼치는 흥분을 숨기도록, 쉴쭉하게

단번에 흰 서류를 발밑으로 끌어냈습니다.

바사리와 천이 침대의 가장자리에 떨어지고, 실롬군의 하반신은, 아무것도 막을 수 없는 완전한 무방비한 모습이 되어, 밤의 병실의 불빛 아래에 노출된 것입니다.

「아, 으아...

실롬 군은 더 이상 말이 되지 않는 비명을 지르면서, 양손으로 완전히 얼굴을 가리고, 작고 딱딱한 깔금함을 떨리면서, 나의 앞에서 단지 부끄러움에 몸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옆의 파이프 의자에서는, 하임 찬이 그 모두를, 역시 냉철할 정도로 조용한 눈으로 계속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Phase.8] 간호사의 연계와 무방비한 소년의 수난

새하얀 서류가 완전히 당겨졌고, 실롬군의 하반신이 밤의 병실의 불빛 아래에 완전히 노출되었다.

그 순간, 카차리와 조용히 문이 열리는 소리가 방에 울렸습니다.

「아카리짱, 준비의 진행 상태는 어때?」

들어온 것은, 방금전 조제실에서 나에게 악한 제안을 해 온 동료의 사기였습니다.

손수레 장바구니에 얹어진 몇 개의 굵은 유리 관장기와 양향 그대로 완전히 무방비한 모습으로 굳어진 실롬군의 모습을 보고, 그녀의 눈이 한순간만 악희처럼 가늘어집니다.

「아, 우아...

또 다른 젊은 간호사의 등장에, 실롬 군은 완전히 공황에 빠져, 얼굴을 덮은 양손의 틈새로부터 눈물을 들여다보고 필사적으로 몸을 좁히려고 했습니다.

나 혼자조차 보이는 것이 죽을 정도로 부끄럽다는데, 한층 더 한 여성에게 그 귀여운 비부를 볼 수 버리니까, 그의 수치심은 이제 한계를 넘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흠..... 사키씨도 왔어...

옆의 파이프 의자에 앉아있는 하임은 게임기를 둔 채 어딘가 재미있는 작은 왜곡을 입술의 가장자리에 띄워 중얼거렸습니다.

언제나 로텐션인 그녀입니다만, 열매의 동생이 하반신 돌출로 2명의 간호사에 둘러싸여 부끄러워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딘가 엔터테인먼트로서 즐기고 있는 것 같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키는 실롬군 앞에 서면 지금까지의 장난스러운 태도를 깨끗이 지워 깨끗하고 진지한 간호사의 표정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의료 행위이며, 치료중이라는 건전을 무너뜨리지 않게, 그녀는 차분한 톤으로 담담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롬군,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당신의 완고한 변비를 해소하기 위해서,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올바른 관장 처치를 실시하러 왔을 뿐이니까요」

「그래서, 하지만...

「골절하고 있는 다리를 망치기 위해서는 이 자세가 가장 안전합니다. 아카리짱, 잠깐 기다려.

「아, 미안해, 사키. 조금 긴장해버려서...

나는 농도 30%의 무거운 유리 관장기를 잡은 채 사키의 정확한 지적에 휩쓸렸습니다.

사키는 손수레 카트의 구석에서 의료용 바셀린의 튜브를 손에 들고, 제대로 잘 비닐 장갑을 양손에 끼우면서 실롬군에 가까워졌습니다.

「굵은 유리 관장기이기 때문에, 점막을 손상시키지 않게, 내가 먼저 바셀린을 확실히 발라 둡니다. 아카리짱은 그대로 관장기를 따뜻하게 가지고 있어」

「으, 응. 알았어, 사키. 부탁드립니다」

「엣, 사, 사키씨가 바르나요...

실롬 군은 눈물을 흘리면서 침대 시트를 손톱이 희게 될 정도로 강하게 잡았습니다.

앞으로 베풀어지는 관장 앞에, 우선은 다른 간호사의 손에 의해, 그 가장 부끄러운 부분에 직접 손가락을 접해 풀린다고 하는 선고.

그 엄격하고 진지한 의료건전이 오히려 실롬군의 도망가를 완전히 빼앗아 밤의 병실의 긴장감을 최고조에 높여 가는 것이었습니다.

[Phase.9] 항문에 바셀린, 그리고 갑자기 손가락 삽입

병실의 공기는 한층 더 열을 띠고, 실롬군의 노출된 하반신의 중심에 있는, 가장 수치를 수반하는 기관——항문의 주위로, 모든 시선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사키는 손가락 끝에 등백 투명한 바셀린을 짜내면, 양향 그대로 무방비로 펼쳐진 실롬 군의 허벅지 사이로 망설이지 않고 그 손을 뺐어 갔습니다.

「시롬군, 힘을 빼 주세요. 관장하기 쉽도록, 항문의 주위를 부드럽게 하기 때문에」

「아, 우... .. 아, 아카리 씨... .. 사키, 씨...

사키의 손가락 끝이, 시롬군의 섬세한 항문 주름에 닿은 순간, 그의 몸이 비궁과 크게 튀어 올랐습니다.

본래라면 타인에게 보여주는 것조차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배설을 위한 신성하고 불결한 장소인 항문.

그 어지러움을 겪은 여성 간호사의 손가락에 의해 직접 색칠하고 애무되는 것처럼 망설이는 수치심은, 사춘기의 시롬군에게 있어서, 뇌가 타버릴 정도의 충격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사키가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항문 주위에 바셀린을 발라 펼칠 때마다, 쿠쭈, 쿠쭈와, 윤활유가 서로 마찰하는 음란한 소리가 조용한 병실에 울려 퍼집니다.

「하아...

너무 수치스럽게 얼굴을 덮고 있던 실롬 군의 입에서 점차 저항의 말이 아니라 어딘가 달콤하고 조금 기분 좋을 것 같은 코에 걸린 요염한 한숨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하반신만 노출되어 벗겨진 항문이라는 가장 안쪽의 약점을 부드럽게 풀리는 쾌감은 그의 이성을 확실히 녹여주었습니다.

「흠...

침대 옆에서 그 광경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던 하임짱이, 억양 없는 로테이션인 목소리인 채, 용서 없이 그 사실을 놀렸습니다.

「그, 그런 게 아니야, 입니다...

필사적으로 부정하려고 하지만 사키의 손가락이 항문의 점막을 부드럽게 긁을 때마다 시롬군의 신체는 쾌감에 견디지 못하고 귀엽게 꺾쩍 떨어 버립니다.

그 모습을 특제 관장기를 붙잡은 채로 응시하고 있던 나는 가슴의 고동이 터질 듯한 두근두근으로 고명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진지하고 예의 바른 소년이 항문이라는 부끄러운 장소를 흥분하고 기분 좋게 목소리를 새는 모습이, 내 간호사로서의, 그리고 한 여자로서의 장난 마음을 미친 정도로 자극하는 것입니다.

사키는 자신의 손가락 끝에 의해 시롬군의 항문이 보이는 사이에 느슨해져, 그가 기분 좋게 황홀해져 가는 모습을 보고, 실로 멋진 만족스러운 미소를 띄고 있었습니다.

항문을 바셀린으로 도로도로에 녹아 완전히 무방비한 쾌감에 잠기고 있는 실롬군.

그 때, 그의 긴장된 항문의 움푹 들어간 곳을 응시하고 있던 내가, 「아!」라고 마음속에서 목소리를 올린 순간이었습니다.

사키는 그때까지의 상냥한 손으로 일전, 장난스럽게 눈을 밝게 하면, 시롬군의 항문의 안쪽이 뻗어, 용서 없이 그 손가락을 밀어넣은 것입니다.

즈부!

「하아아아아!?!? 응응우우!!」

조용한 병실에, 고기와 고기가 격렬하게 마찰하는, 둔하고 무거운 효과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키의 얇은 집게 손가락은, 완전히 방심하고 있던 실롬군의 항문의 깊숙이로, 일체의 주저없이 근원까지 갑자기 꽂혀 버렸습니다.

「아, 사키...

내가 놀라움의 목소리를 올리는 것과 동시에, 실롬 군은 체험한 적이 없는, 항문의 최안을 직접 삼입되는 강렬한

쾌감과 수치심에, 활처럼 등을 뛰어 올랐습니다.

뿌리까지 채워진 사키의 손가락에 의해, 실롬군의 긴만한 항문은, 더 이상 없을 정도로 둥글고, 크게 밀려 퍼져, 그의 소년다운 자존심을 완전히 분쇄하고 있었습니다.

[Phase.10] 항문에 꽂은 손가락을 힘차게 회전

즈부즈부와 사키의 손가락이 뿌리까지 묻힌 실롬 군의 항문은 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따듯한 손가락의 질량을 더 이상 없을 정도로 욕심에 조여 있었습니다.

「히, 아, 아, 우, 사키씨... .. 뭐야 이거...

실롬 군은 완전히 공황이 되면서도, 항문의 깊숙히 찔린 손가락이 가져오는, 강렬한 쾌감에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건 그냥 이물감이나 수치심뿐만이 아닙니다.

직장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직접 뺏어 펼쳐진 것으로, 그의 신체의 안쪽에 잠들고 있던, 소년으로서는 음란한 항문의 쾌감이 단번에 튀어 올라 버렸습니다.

뺏속의 안쪽이 쭈와쭈와 뜨거워져, 뇌를 직접 흔들리는 달콤한 쾌락이 온몸을 달리고 있다——하지만, 그것을 여성 간호사 2명의 앞에서, 그리고 열매의 언니인 하이임 양 앞에서 인정하는 것은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시롬군은, 그 항문으로부터 솟아오르는 너무도 오징어진 쾌감을 필사적으로 숨기려고, 눈물을 엉망으로 흘리면서, 꺾 입술을 씹었습니다.

「응, 응—っ...

그는 그가 고통인 것처럼 옷을 입고 필사적으로 간청했지만, 팬츠까지 벗겨져 노출된 하반신의 남근은, 방금전보다 더 딱딱하게 딱딱해져, 뽀뽀뽀와 기쁘게 떨고 버렸습니다.

그런 그의 눈물 가득한 거짓말의 저항을, 백전 연마의 사키가 놓칠 리가 없습니다.

"어머, 시롬군, 아직 힘이 너무 많아 보인다. 이거 아카리 짱이 특제 유리 관장기를 삽입할 때 엉덩이 구멍이 다치기 때문에. 더 잘 풀어주지 않으면"

사키는 지극히 심각한 간호사의 얼굴을 한 채, 그 눈은 요염하게 빛나게 해, 항문의 뿌리까지 묻혀 있던 손가락을, 이번은 힘차게, 그리고 일정한 템포로 리드미컬하게 회전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추, 구추, 즈부부부.....!

「응 흠!?!?!」

바셀린과 장벽의 점액이 섞여 병실 안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음란한 고기의 마찰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사키의 손가락이 힘차게 회전할 때마다, 시롬군의 섬세한 항문의 가장 안쪽은 빙빙 안쪽에서 유린되어 그 때마다

그의 작은 성기가, 마치 먹이를 갖고 싶은 잉어와 같이 억지로 튀어 올랐습니다.

「헉아우!? 아, 아, 응, 응우! 사키씨, 안돼... ... 거기, 안돼요!」

리드미컬하게 반복되는 강력한 손가락의 회전에, 실롬군은 이제 쾌감을 숨길 수 없게 되어, 목소리를 뒤집어 침대 위에서 활 나름대로 등을 뒤집었습니다.

긴축된 소년의 항문이, 사키의 손가락의 움직임에 맞추어 쿵쿵췌와 왜곡, 대량의 바셀린을 씹으면서, 더 안쪽으로, 더 강하고, 쾌락을 탐하고 있는 것이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성기로부터 투-투 투명의 실이 1개 늘어졌습니다.

나는 그 사키의 용서가 없는 손가락의 움직임과, 실롬 군이 부끄러워하면서도 항문의 쾌감에 완전히 굴복해 가는 모습을, 숨을 마시는 것도 잊고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양손에 잡힌, 농도 30퍼센트의 약액이 나미나미와 들어간 붉은 유리 관장기가, 긴장과 흥분으로 카차카차와 작게 소리를 내며 떨립니다.

(대단한...

진지한 간호사로서의 이성이, 실롬군의 미친 듯한 쾌감의 표정에 의해, 소리를 내어 무너져 가는 것을, 나는 확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Phase.11] 특제 관장으로 채워지는 직장

사키의 손가락이 힘차게, 그리고 리드미컬하게 회전할 때마다, 시롬군의 항문은 등백 바셀린과 섞여, 쿠췌췌췌와 음란한 소리를 세워 완전하게 풀어져 갔습니다.

「응, 아, 아, 사키씨... ... 이제, 이제 무리입니다...

소년다운 작은 친친을 뺨뺨뺨과 흔들어 수치와 쾌감의 물결에 빠질 것 같아지고 있는 실롬군.

사키는 그 모습을 만족스럽게 들여다보면, 즈부부, 라고 소리를 내어, 뿌리까지 메우고 있던 손가락을 천천히 빼냈습니다.

"응...후우....."

손가락이 빠진 후의 시롬군의 항문은, 붉게 불빛, 폭 둥글게 펼쳐진 채로, 주님을 잃고 히히히쿠와 외로울 것 같게 응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아, 아카리짱, 기다려줘. 엉덩이 구멍의 준비는 확실하니까, 특제의 녀석, 단번에 가버려」

사키는 성실한 얼굴 그대로, 하지만 즐거움에 눈을 돌려 왔습니다.

「그래...

나는 손수레 장바구니에서 30% 농도의 글리세린 용액이 채워진 무거운 100ml의 거대한 유리 관장기를 양손으로 들어 올렸다.

투명한 유리통 중에서 수상하게 흔들리는 약액.

이만큼의 양이 자신의 항문에서 쏟아진다고 깨달은 실롬 군은 얼굴을 눈물로 적시면서 겁 먹은 것처럼 눈을 뜬다.

「호, 정말로... .. 관장... 합니까?...」

확실히 소년은 너무 관장되는 이미지는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괜찮아요, 천천히 넣으니까요. 입으로 숨을 빠져서 엉덩이의 힘을 빼주세요"

나는 침대 옆에 자리 잡고 실롬 군의 펼쳐진 허벅지 사이에서 붉게 빛나는 항문의 틈을 바라 보았다.

그리고, 붉은 유리의 노즐의 선단을, 그 중심으로 살짝 맞추고 있습니다.

「하아...

차가운 유리의 끝이 섬세한 항문에 닿은 것만으로, 실롬 군의 신체가 크게 떨립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게, 목적을 정해 단번에 힘을 쏟았습니다.

ㄹㅎ 누뭉.....!

「응응우우!」

사키의 손가락보다 딱딱하고, 차가운 유리의 관이, 실롬 군의 항문을 미지근해 밀어 펼치면서, 그 가장 안쪽으로 용서 없이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는, 들어가서... .. 차가운 것이, 엉덩이에...

「시롬, 대단한 소리 내고 있다...

옆의 파이프 의자로부터, 하임짱이 억양이 없는 로텐션인 목소리로, 동생의 무고한 모습을 냉정하게 실황합니다.

실의 언니에게 바라보면서, 항문에 관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시롬군의 수치심을 한층 더 괴롭힙니다.

「하임, 보지 말고, 라고...

「아니, 실롬군. 프로덕션은 앞으로입니다. 배를 깨끗이 시키기 위해, 관장해 가겠네요」

나는 유리 관장기의 큰 피스톤에 엄지 손가락을 걸면 주저없이 쪽 강하게 밀어 갔습니다.

체험판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으면 계속되는 제품판도 읽어 주시면 기쁩니다.